

또래 관계

Peer Relations

심희옥(Hee-og Sim)¹⁾

신유림(Yoolim Shin)²⁾

ABSTRACT

The main body of research literature on peer relations has focused on its effects on children's psycho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from preschool period to adolescence. Topics of the research generally consist of peer acceptance/rejection, friendships, and peer victimization. In th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conducted since late 1990, research trends and issues are described in this paper. Findings suggest some measures in interventions, prevention, and policies in promoting positive peer relations. Some social skill trainings are needed for children to react appropriately in peer relations and get along with their peer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differentiation of the intervention programs by participants'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and gender of children. Moreover, a longitudinal research is requir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developmental changes in peer relations.

Key Words : 또래 수용(peer acceptance), 친구관계(friendship), 또래 괴롭힘(peer victimization), 또래 괴롭힘 참여자 역할(participant roles in bullying situations).

I. 현 황

아동에게 또래란 부모와 다른 성인이 힘이나 통제로 아동과 수직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아동을 사회화 시키는

중요한 존재이다.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때 또래 간의 힘이 균등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또래 간의 힘이 불균등 해 서로 수용되기도 하지만 거부되거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또래 간의 다양한 사회적인 모습을 보

¹⁾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교수

²⁾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o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Yokkok 2dong Wonmigu, Bucheon City 420-743, Korea
E-mail : yoolim@catholic.ac.kr

고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진 2000년대 이후 국내의 또래 관계에 대한 문헌은 또래 관계, 또래 수용/거부, 친구 관계, 또래/집단 괴롭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문헌은 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긍정과 부정적인 또래 관계와 관련된 심리사회적인 변인, 부모와 학교 변인을 탐색하고,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도울 프로그램 활동과 치료 쪽의 연구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또래 괴롭힘에 관한 연구는 1990년도 후반부터 행해지기 시작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주춤해졌고 요즘은 실제적인 개입이나 치료 및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또래 관계에 대한 외국 연구들은 종단적 연구설계를 기초로 하여 또래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인과론적인 결과를 추론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단적 연구 설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고급 통계적 분석 방법들이 적용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적 행동특성과 또래 거부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발달에 따른 변화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또래 거부와의 관련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Cillessen & Mayeux, 2004).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또래 관계망이 확대되며, 특히 공격적인 아동들은 자신과 유사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과 친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들로 받는 지지가 또래 수용 정도를 높일 수 있다(Cillessen & Mayeux, 2004).

대부분의 외국선행연구들이 서구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행동과 또래 거부의 관련성을 규명하였으나 문화적 맥락에서 이러한 사회적 행동

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행동과 또래 수용의 관계를 문화적 맥락에서 비교하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서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같이 친사회적이고 사교적인 아동일수록 또래 수용 정도가 높았다(Chang, 2004). 또한 이탈리아(Casiglia, Coco, & Zappulla, 1998)와 쿠바(Valdivia, Schneider, Chavez, & Chen, 2005)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서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유사하게 공격성은 또래 거부와 관련성이 있었으나 위축성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중국 아동의 경우 위축성과 또래 수용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Chang, 2004). Chen, Cen, Li와 He(2005)는 중국아동의 경우 수줍음과 또래 수용사이의 관계는 연구가 진행되는 시대적 배경(cohort)에 따라 다르다고 보았는데, 1990년대에 실시된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2002년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부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서구화되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수줍음 및 위축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의 평가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특정 상황에서 또래들로부터 거부되거나 수용되는 아동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사회적 과제 접근 방법(social task approach)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과제에 대한 기술과 지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도움 찾기(help-seeking)와 도움 주기(help-giving) 과제에 대한 아동의 반응에 대한 연구(Rose & Asher, 2004)와 또래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아동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연구(Troop-Gordon

& Asher, 2005)들이 있다.

또래 관계에 대한 외국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70년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작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이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1980년대 18개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1990년대 246개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매년 100-200개의 새로운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Salmivalli & Peets, 2009). 또래 괴롭힘 연구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문제의 복잡성과 질에서도 변화가 있다.

또래 괴롭힘의 유형에 대한 초기 외국연구들은 신체적 괴롭힘(때리기, 차기, 밀기)과 언어적 괴롭힘(놀리기, 모욕하기, 위협하기)에 초점을 둔 직접적인 유형을 다루었다. 1980년 후반 이후 직접적인 괴롭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행동(소문내기, 피해 아동에 대해 거짓말하기)이나 피해자와의 관계에 손상을 가하거나 이에 대하여 협박하기와 집단에서 배척하거나 소외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적 지위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 관계적 및 간접적인 공격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rick & Grotpeter, 1995). 최근에는 통신매체를 사용한 사이버 괴롭힘(cyber bullying)과 같은 새로운 유형에 대한 연구들(Raskauskas, 2007; Slonje & Smith, 2008)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핸드폰, 전자메일이나 인터넷 웹페이지와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유해한 행동을 전달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방법의 괴롭힘과 비교하여 빈도는 낮지만 새로운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확산될 것이다.

또한 또래 괴롭힘의 발생률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률을 측정하였다. 첫 번째 측정방법은 또래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러한 괴롭힘을 아동 자신이 얼마나 빈번하게 경험하는지를 질문하여 한

달에 적어도 2, 3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보고한 아동들을 피해자로 구분하였다(Solberg & Olweus, 2003). 이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별 비율을 조사한 본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피해아동은 11%, 가해아동 11%, 가해/피해 아동은 4-6%로 보고되고 있다(Haynie, Nansel, Eitel, Crump, Saylor, & Yu, 2001). 두 번째 측정방법은 가해 및 피해 변인에 대하여 기준점(cut score)을 적용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라 가해, 피해 및 가해-피해 집단을 구분하여 이러한 하위집단에 따른 행동 특성과 심리사회적 적응에서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Schwartz, 2000).

II. 연구쟁점

또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주제별 연구쟁점을 4가지로 분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또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또래의 영향은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컸다(이사라 · 박성연, 2001).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또래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며 정서적 지지를 더 지각하였고 공격적인 청소년이 친구와 즐겁게 어울려 다녀도 또래가 정서적 안정감의 원천이 되고 더욱 성숙한 또래관계로 이끄는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기는 어렵다(유안진 · 한유진 · 김진경, 2002).

또래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지는 연구에서 어머니가 온정적이고 애정 표현을 잘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 존중해주는 경우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를 빈번히 마련해 주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감독할수록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유능하다(박주희 · 이

은혜, 2001). 또한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으면 아동의 수줍음-고립성이 낮았고(천희영·옥경희·김미혜, 2001), 아동이 또래로부터 선호된다고 지각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는데 이러한 관계는 가족으로부터 지지받는 정도가 높은 아동에게서 더욱 강했다(정운주, 2004a).

청소년은 또래관계의 질이 낮을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여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문제행동을 덜 보인다(한현아·도현심, 2008).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은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 또래 관계의 질 중 유연한 사고와 조망수용능력을 요하는 절충과 타인에 대한 신뢰가 우울을 예측하여 청소년기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나 또래 상담자의 개입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김소연·이정숙, 2001).

두 번째, 또래 수용/거부는 공격성과 관련이 깊은데 먼저, 남녀 유아 모두 신체적으로 공격적이며 또래에게 거부되기 쉽다. 관계적 공격 성향을 보이는 남아만이 또래로부터 거부되어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경험하는데, 관계적 공격성 정도가 높은 여아는 또래에게 거부되지 않는다(신유립, 2008). 또래 집단의 수용 및 거부는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동의 내면화,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또래 수용/거부라는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자신감과도 관련이 있다(고윤주·김영신·노주선, 2000). 또래 수용은 아동의 여러 영역별 자아 존중감에 어머니의 지지보다 영향을 더 준다(박경리·김경연, 2001). 남아의 또래로부터의 수용은 양육의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 외현적 공격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지영·김현철, 2004). 이런 또래 수

용은 친사회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어 아동이 친사회적일수록 또래로부터 수용을 더 받는다. 2년이 지나서도 거부아가 가장 친사회적이지 않아 아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수정할 기회 없이 그대로 아동기를 보내고 있는 듯하다(심희옥, 2005b). 인기 아동과 거부 아동은 친구관계의 질에서 뿐 아니라 실제 이들의 갈등 해결방식 및 갈등 종결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거부 아동은 친구관계에서 경쟁과 갈등이 있고, 갈등 해결방식과 갈등 종결방식도 친구보다는 자기중심적이다(김송이, 2006).

세 번째, 친구관계를 발달단계별로 탐색한 연구에서 유아는 같이 놀이를 하기 때문에 친구를 좋아하고, 혐오적인 행동을 하고 언어와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또래를 싫어한다. 초등학교 아동은 공부나 운동을 잘 하고 정직하고 착한 아동 즉, 도덕성이 강한 아동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부터 서로의 유사성 때문에 친구관계를 형성한다. 혐오적인 행동과 공격성(사회적, 언어적, 신체적)이 또래가 싫어하는 주요한 요인이다(황혜정, 2002).

친구관계가 지니는 여러 기능 중 한 명 이상의 친구관계는 아동을 또래 괴롭힘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며 친구가 없는 아동은 빈번히 괴롭힘을 당한다(신유립, 2000). 친한 친구의 개인적인 지원은 또래 집단의 거부와 폭력이 사회적 자신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한다(고윤주·김영신·노주선, 2000). 가장 친한 친구관계는 위축된 아동이 또래 거부나 또래 괴롭힘 가해에 연루되는 것에서 보호해 주고 사회적인 불안감을 완화한다(신유립, 2007b).

친구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아동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한다. 상호적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한

다. 친구관계의 사회정서적 지원 기능이 높을수록 아동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수용된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지각한다(오원정 · 이은혜, 2000).

친한 친구와 긍정적 기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좋으며, 친한 친구와 갈등이 많을수록 학교적응은 좋지 않다. 친구와의 교제의 즐거움 정도가 학교적응에 기여하는 것은 남학생의 경우이고 친구관계의 질 중 신뢰감만이 여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문은정 · 심희옥, 2001). 이처럼 친한 친구관계는 아동에게 심리적 지원이 되고, 소속감을 갖게 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만족하는 정도가 높아 외로움을 덜 느낀다. 가장 친한 친구가 상호적인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로움을 덜 경험한다(정윤주, 2004b).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구와의 대인관계가 원만하다(장재숙 · 백경임, 2002). 기질의 특성 중 정서성이 높을 때 친구관계의 갈등이 크고, 활동성과 사교성이 높을 때 친구관계는 더 온정적이다. 부모와 애착이 좋은 아동과 청소년은 더 온정적이고 갈등은 적은 친구관계를 형성한다(장휘숙, 2008). 아버지와의 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 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친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효능감과 자아개념을 매개하여 영향을 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와 애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박원모 · 천성문, 2008).

네 번째,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의 형태나 역할자 집단에서 발생상황이 남녀 간 다양하다. 아동이 경험하는 관계상의 괴롭힘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고 명백한 괴롭힘은 남아가 많다(이경남, 2001). 남아가 괴롭힘 가해를 더 많이

하는데 남아는 신체와 언어적 위협을 많이 사용하고, 여아는 소문을 퍼트리거나 집단에서 제외시키는 등 행동 유형에 차이가 있다(이은주, 2001). 서미정과 김정연(2004)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를 빼고 남아는 가해자가 많고 피해아는 가장 적고, 여아는 가해 · 피해아가 가장 많고 가해아가 가장 적다. 남아가 또래 괴롭힘 가해경험이 높지만, 피해경험은 남녀차이가 없으며(서미정 · 김정연, 2005), 가해/피해 집단이 58.2%에 이르기 도 한다(김예성 · 김광혁, 2008).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역할자는 방관자, 피해아 방어자, 가해동조자의 순으로 많고, 과반수 이상의 주변또래들이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보고도 모른 채하거나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다(서미정 · 김정연, 2006). 또한 남아는 가해자가 많고, 여아는 방관자가 많다(심희옥, 2008). 학년이 높을수록 주변또래들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더욱 방관하고 피해아 방어에는 덜 개입한다(서미정 · 김정연, 2006; 심희옥, 2005a). 청소년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가해에서 성별 차이가 없고, 또래 괴롭힘 피해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다(김희화, 2002).

또래 괴롭힘에 관여된 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은 유사한 행동 특성을 지닌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고(신유림, 2000), 피해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과잉행동과 정신증이 높으며, 피해와 가해 아동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과잉행동은 높다(최윤정 · 진혜경 · 김종원, 2001). 집단 괴롭힘 대상 아동은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상호지명 친구가 없으며, 내향적 및 외향적 행동문제가 많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일수록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은주, 2002). 집단 괴롭힘의 피해 아동은 또래 거부가 높고 또래 수용은 낮는데 집단 괴롭힘 가해 남학생은 대체로 부정적인 또래 관계를 보이지만, 가해 여학생은

또래에게 거부되기 보다는 오히려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이은주, 2003). 가해 집단은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자존감이 높다(이춘재 · 박금주, 2000). 이는 우려할 사항이나 집단 괴롭힘을 주도했던 학생은 단기종단적으로 전반적 존중감의 하락한다(이은주, 2004).

또래 괴롭힘의 가해 및 피해 아동은 공통적으로 상호적 친구가 적고, 자신과 유사한 유형의 친구를 사귀며, 친구관계의 질이 낮다(이은해 · 고윤주, 2004). 또한 가해 · 피해아는 일반아보다 친구지지 수준은 낮은 반면 공격적이고, 미성숙하며, 친구의 비행성향 및 폭력노출 수준이 높다(서미정 · 김경연, 2004). 남아의 경우 가해가 높은 집단은 위축 수준이 높고, 피해가 높은 집단은 위축 수준이 높고 자기주장력도 부족하다. 여아의 경우 가해가 높은 집단은 공격성이 높고 정서조절을 잘 못하고 자기주장력이 부족하며, 피해가 높은 집단 역시 위축과 공격성이 높고 자기주장력은 부족하다(서미정 · 김경연, 2005). 가해아동은 피해 아동에 비해 정서적 불안정성, 친구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피해 아동은 피해 아동에 비해 정서적 불안정성과 친구, 외모와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다(김승경, 2006).

긍정적인 대인관계 특성의 소유자가 방어자 역할을 하며 부정적인 대인간 행동특성의 소유자는 방관자가 되기 쉬워 보이며 장기적으로 중요한 대인간 행동특성은 사회적 기술로 보인다(심희옥, 2005a). 친구수가 많을수록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낮다(신유림, 2007a). 또래 괴롭힘에서 가해적이면서 피해를 경험하는 여아는 관계적인 공격성을 많이 한다(심희옥, 2007). 남아 가해자는 사회적 거부가 높으나 지각된 인기도도 높고, 방관자 특히 남아 방관자의

사회적 불안은 심해 보이며, 여아 피해자가 다른 참여자 역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부정적인 정서를 더 경험하기 쉽다(심희옥, 2008). 가해/피해자는 우울불안과 공격성의 수준이 가장 높고 학교유대감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김예성 · 김광혁, 2008).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가해행동을 하는 정도가 높고,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피해경험이 높더라도 자존감, 내적통제 성향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은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다(조유진, 2008). 중학교 1-3학년에서 사회기술이 부족하고 또래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좋지 못해도 자기 자신의 자존감 및 문제행동 측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유지된다면 또래 괴롭힘 가해나 피해에 연루되지 않는다(이경아, 2008).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보면 또래 괴롭힘 관여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또래 괴롭힘과 부모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 · 제재적일수록, 아동의 위축 행동문제가 많을수록, 통제소재가 외재적일수록 또래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한다(이경남, 2001). 피해아의 어머니는 일상적으로 아동의 행동을 간섭하거나 아동을 과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동에게 강압적이다(도현심, 2002). 또래부적응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이 더 거부적이고 또래 괴롭힘 경험이 더 많고 부모표상 및 또래표상이 더 부정적이다(김귀연 · 김경연, 2005). 우려되게도 가해 성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피해 성향이 높은 아동에 비해 지각하고 있는 가족지지와 또래지지가 더 높다(김미경 · 강문희, 2006). 중학생 대상연구에서 부모의 공격적 학대(육설, 구타)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행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가해/피해 집단이 되기 쉽고 또한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할수록 피해를 경

협한다(신희경, 2006).

또래관계의 외국 연구에서 주제별 연구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수용/거부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행동특성과 또래 거부 및 수용과의 관련성을 보고하였으며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들의 경우 친사회적이고 협동적이며 리더십을 보이는 반면에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며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거부되는 정도가 높다(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한 또래 수용 및 거부 분야에서 인기도 개념과 관련된 연구쟁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기도를 사회 측정적 인기도(sociometric popularity)와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로 구분한다. 지각된 인기도는 학급에서 인기 있는 아동을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측정되며 아동이 실제 받은 인기 지명빈도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지명빈도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한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측정적 인기도 사이에 중간에서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가 보고되고 있다(Hawley, 2003; Cillessen & Mayeux, 2004). 지각된 인기도는 힘과 지배적 성향과 관련성이 높았으며(Hawley, 2003), 유머 감각, 학업능력, 운동능력과 관련성이 있다(Vaillancourt & Hymel, 2006). 종단적 연구를 보면, 관계적 공격성은 지각된 인기도와 상호관련성이 있고 상호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Cillessen & Mayeux, 2004).

지각된 인기도와 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은 아동의 성, 연령 및 맥락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관련성이 없으나 청소년기로 전이하면서 이러한 관련성이 증가하며 남아아동을 비교해보았을 때,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관계적 공격성과 지각된 인기도 사이의

관련성이 더욱 높았다(Rose, Senson, & Waller, 2004).

두 번째, 외국에서 진행된 친구관계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친구관계의 유무와 친구관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질과 같은 측면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친구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들의 두 집단을 사회 정서적 발달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결과를 보면, 친구가 있는 아동들은 없는 아동들에 비해 자신감이 높으며(Hartup, 1996),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낮으며(Parker & Asher, 1993),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업성취도가 높다(Ladd, Kochendefter, & Coleman, 1996). Ladd와 Troop-Gordon(2003)의 종단적 연구에서 친구관계의 결핍은 1년 후의 외로움과 불안을 예언해주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아동의 내면적 문제, 또래 거부 및 또래 괴롭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유의미하다. 친구관계는 새로운 사회적 상황에서 환경을 탐색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지(secure base)의 역할을 해주며, 이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적 건강과 자기 확신감의 근간이 되는 긍정적인 자아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add & Troop-Gordon, 2003).

친구관계는 부정적인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요인과 부적응 사이의 관계를 중재해주는 보호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Laursen, Bukowski, Aunola와 Nurmi(2007)의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전이시기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보면 이 시기에 사회적으로 고립된 아동은 초등학교시기에 외현적 및 내면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관계는 가정의 문제 환경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줄 수 있는데, Rubin, Bukowski와 Parker(2006)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이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의 친구관계 질이 이러한 관계를 중재해준다. Schwartz, Dodge, Pettit와 Bates(2000)의 연구에서도 가정환경의 문제와 또래 집단 괴롭힘 피해 사이의 관계를 친구관계가 중재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구의 수가 적은 경우, 처벌적이며 적대적이고 엄한 가정환경은 또래 괴롭힘 피해와 관련성이 높으나, 반면에 친구 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관계가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 되었다. Hodges, Malone과 Perry(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공격성과 위축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특성이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야기하게 되나 친구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관련성의 정도가 낮다. Hodges, Boivin, Virato와 Bukowski(1999)의 연구에서 또래 괴롭힘은 내면적 및 외현적 문제 행동을 예언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특히 친구관계가 부족한 경우에 예언 정도가 더 높다.

친구관계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연구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친구관계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친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친구 행동특성에 따라 친구관계의 긍정 및 부정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친구관계는 아동이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과 친구관계를 형성한다는 유유상종의 원리로 설명된다(Hartup, 1996).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과의 친구관계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하여 비행과 같은 일탈적 행동에 점차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다. 실제로 일탈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

동은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과 친구관계를 맺고 있으면 일탈적인 행동의 정도가 높아졌다(Vitaro, Brendgen, & Wanner, 2005).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친구가 있는 아동은 일반적인 친구를 둔 아동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우울을 보인다(Murg, Hoza, & Bukowski, 2004). 또한 친구가 보이는 비행, 약물사용, 공격성과 같은 외현적 문제는 아동이 이와 유사한 외현적 문제행동을 학습하고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

반면에 친구의 친사회성 성향은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아동에게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내적인 심리과정에서의 변화를 통하여 아동의 친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Wentzel, Barry, & Caldwell, 2004). Barry와 Wentzel(2006)의 연구결과를 보면,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1년 이후에 아동의 친사회성에서의 변화를 예언해주었으며, 이러한 관계는 친구관계 질, 친구와의 상호작용 빈도와 친구관계 안정성에 의해 중재되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해주지만 이러한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Vitaro, Boivin과 Bukowski(2009)는 친구관계인 아동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미시사회적 과정(micro-social processes)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또래 괴롭힘에 대한 외국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차원과 관련된 이슈가 연구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과 같은 개인 차원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나

집단 차원에서 새로운 연구방법과 설계에 기초하여 단순한 주효과 차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통계분석방법으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적용하여 개인, 쌍(dyad) 및 집단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Card와 Hodges(2007)는 또래 괴롭힘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거부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또래들 보다는 상호 싫어하는 관계(mutual antipathies)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가해-피해 아동 쌍의 이원적(dyadic) 관계 차원에서 또래 괴롭힘을 분석하였다. 또한 힘, 공격성과 피해 수준에서 비슷한 경우보다 처음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두 명의 아동 사이에서 쉽게 발생된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위축성이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원인 뿐만은 아니며, 공격적 행동은 무선적으로 또래들에게 가해지기 보다는 특정 아동에게 가해지므로 이러한 연구들은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Card & Hodges, 2007).

이와 더불어 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학급이나 학교 차원의 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또래 괴롭힘은 전체 학급의 규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학급의 대부분 아동들이 괴롭힘을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한다면 아동들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편이 될 가능성이 많다(Salmivalli & Peets, 2009). 또한 학급 맥락의 특성은 또래 괴롭힘의 결과를 조절해줄 수 있는데,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급에서는 피해 아동이 거부 되는 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역설적으로 학급의 부정적인 맥락이 피해 아동에게 보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Sentse, Scholte, Salmivalli, & Voeter, 2007).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첫째,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 인간의 근원적인 사회화 장소인 가정에서 부모나 성인의 노력이 중요하겠다.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문제해결 방식과 관련이 깊어 가정에서 아동이 애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자신의 스트레스와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대인관계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정서적인 개입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김승경, 2006).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자녀의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또래 수용은 친사회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어 아동이 친사회적일수록 또래로부터 수용을 더 받고(심희옥, 2005b; Rubin, Bukowski, & Parker, 2006), 친사회적인 또래관계는 성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증대시켜 학교와 사회 환경에 소속감을 커지게 해 친사회적 행동은 더 증가될 수 있다(김예성·김광혁, 2008). 7개월 간격의 단기종단연구에서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자 지명정도는 매우 안정적이고(이은주, 2003), 2년이 지나서도 거부아가 가장 친사회적이지 않아 아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수정할 기회 없이 그대로 아동기를 보낼 수 있으므로 이는 학교당국이나 부모님, 아동발달 전문가들이 주목해야할 점으로 여겨진다(심희옥, 2005b).

셋째, 아동의 자존감이 또래 괴롭힘 피해의 보호요인(김예성·이봉주·정익중·나은숙·김광혁, 2006)이 되기도 하지만, 또래의 지지 속에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아동이 또래 괴롭힘 가해에 많이 연루되는 것(김미경·강문희, 2006; 이

춘재·곽금주(2000)에 주목을 요한다. 이는 아동이 또래에게 부적절한 가해 행동을 하고도 자신을 추중하거나 가해를 강화해 주는 또래들의 지지가 있어 자신의 가해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 성인과 아동이 또래 괴롭힘의 폐해에 대해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이를 계몽할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넷째, 또래 괴롭힘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사회적 기술이다. 또래 괴롭힘 피해아동을 위한 예방과 치료 개입 시 피해 아동의 또래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또래와 잘 어울리고 또래 관계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회적 기술 훈련이 필요하다. 운(luck) 귀인을 많이 하는 가해 아동은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피해아동에게 있다는 외부 귀인 양식을 많이 하지만, 피해 아동의 경우는 자신이 또래 괴롭힘 당하는 이유를 변하지 않는 외부의 이유에 있다고 지각함으로써 또래 괴롭힘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상실한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아동의 바람직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로 부적절한 또래 관계에 연루된 아동이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겠다(김미경·강문희, 2006).

마지막으로, 공격행동의 유형이 남녀 간에 다르고(이은주, 2001) 또래 괴롭힘 관여정도와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남녀 간에 다르므로(심희옥, 2008) 원만한 또래 관계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성별과 집단 역동을 고려한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역할 집단별로 달리 행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또래 괴롭힘 문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적 개입 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 피해 아동을 포함하는 예방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해나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윤주·김영신·노주선(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 간의 구조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65-78.
- 김귀연·김경연(2005). 아동의 위축 및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관계: 거부적 양육행동, 또래 괴롭힘, 부정적 부모표상 및 부정적 또래표상의 인과효과. *아동학회지*, 26(6), 247-266.
- 김미경·강문희(2006). 사회적 지지와 귀인성향이 또래 괴롭힘 가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 6(2) 1-17.
- 김소연·이정숙(2001).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2(3), 75-90.
- 김송이(2006).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방식 및 중결방식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4), 265-278.
- 김승경(2006).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한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의 차이. *심리치료*, 6(1), 117-134.
- 김예성·이봉주·정익중·나은숙·김광혁(2006). 초등학교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23, 65-97.
- 김정민·이정희(2008).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질과 학업성취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여성가족생활연구*, 12, 115-128.
- 김희화(2002). 청소년의 또래 괴롭힘 가해 및 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친구지지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9), 47-61.
- 도현심(2002). 또래 괴롭힘 피해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 *인간생활환경연구*, 1, 57-71.

- 문은정 · 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박경리 · 김경연(2001). 아동의 영역별 자아존중감에 대한 어머니의 지지 및 또래수용도의 영향 : 단짝친구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22(4), 85-97.
- 박주희 · 이은혜(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 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원모 · 천성문(2008).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부모애착과 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및 친구관계 간의 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1), 41-59.
- 서미정 · 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 · 환경적 특성과 또래 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 서미정 · 김경연(2005). 아동의 개인적 변인이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모의 애정 및 교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3(4), 187-201.
- 서미정 · 김경연(2006).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또래 유형의 관별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7(6), 35-51.
- 손지영 · 김현철(2004).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331-358.
- 신유림(2000). 초등학교 아동의 또래 괴롭힘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 51-58.
- 신유림(2007a). 또래 괴롭힘의 피해 및 가해와 친구관계의 관련성 : 친구관계망, 친구관계 질 및 친구의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5), 75-83.
- 신유림(2007b).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 신유림(2008). 유아기의 신체적 및 관계적 공격성 : 성차 및 언어, 사회적 능력과의 관련성. *유아교육연구*, 28(2), 95-111.
- 신희경(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심희옥(2005a). 또래 괴롭힘과 대인간 행동특성에 관한 횡단 및 단기종단연구 : 참여자 역할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6(5), 263-279.
- 심희옥(2005b). 아동의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 및 친사회성과 또래관계와의 횡 · 종단적 관계. *아동학회지*, 26(2), 121-134.
- 심희옥(2007). 또래 괴롭힘과 외현과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횡단 및 종단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6), 1107-1118.
- 심희옥(2008). 또래 괴롭힘 참여자의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정서에 관한 연구 : 성별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9(3), 191-205.
- 오원정 · 이은혜(2000). 아동의 친구관계 특성과 자아지각의 관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 14, 36-48.
- 유안진 · 한유진 · 김진경(2002).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23(3), 79-90.
- 이경남(2001). 아동의 또래 괴롭힘과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 아동의 행동문제, 내외통제소재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8), 37-52.
- 이경아(2008). 사회기술 및 또래관계가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평가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 5(1) 61-80.
- 이사라 · 박성연(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가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22(4), 17-32.
- 이은주(2001). 공격적 행동의 유형 및 성별에 따른 집단 괴롭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또래관계 비교. *아동학회지*, 22(2), 167-180.
- 이은주(2002). 내 · 외향적 행동문제와 집단괴롭힘의 관계에 대한 자아개념과 또래관계의 조절효과. *초등교육연구*, 15(2), 345-363.
- 이은주(2003). 아동의 공격성, 또래관계 및 집단 괴롭힘의 안정성. *초등교육연구*, 16(2), 283-300.
- 이은주(2004).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141-165.

- 이은혜 · 고윤주(2004). 또래 괴롭힘에 관련된 아동의 친구관계와 자아지각. *아동학회지*, 25(4), 1-16.
- 이춘재 · 박금주(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 실태와 특성. 서울 : 집문당.
- 장재숙 · 백경임(2002). 어머니 양육태도, 아동의 자아 개념이 아동의 친구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11.
- 장휘숙(2008). 기질과 애착이 형제자매관계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1), 69-87.
- 정윤주(2004a). 또래관계 경험 및 가족지지에 따른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11), 1-15.
- 정윤주(2004b). 학령기 아동의 또래수용 및 가장 친한 학급 친구의 상호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2(7), 19-32.
- 조유진(2008).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개인내적 중재변인 탐색. *아동학회지*, 29(5), 215-226.
- 최희영 · 옥경희 · 김미혜(2001). 학령기 아동의 자기 보고와 부모감독에 따른 또래관계 및 인지적 자기능력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0(10), 153-168.
- 최윤정 · 진혜경 · 김종원(2001). 학령기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성향에 관한 연구 : 한국아동인성검사를 이용하여.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2(1), 94-102.
- 한현아 · 도현심(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황혜정(2002). 아동과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35-49.
- Barry, C. M., & Wentzel, K. R. (2006). Friend influence on prosocial behavior :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and friendship characteristics. *Developmental Psychology*, 42(1), 153-163.
- Card, N. A., & Hodges, E. V. E. (2007). Victimization within mutually antipathetic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3(3), 479-496.
- Casiglia, A. C., Lo Coco, A., & Zappulla, C. (1998). Aspects of social reputat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Italian children : A cross-cultur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723-730.
- Chang, L. (2004). The role of classroom norms in contextualizing the relations of children's social behaviors to peer accept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0(5), 691-702.
- Chen, X., Cen, G., Li, D., & He, Y. (2005). Social functioning and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 the imprint of historical time. *Child Development*, 76(1), 182-195.
- Cillessen, A. H. N., & Mayeux, L. (2004). From censure to reinforcement : Developmental chang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75(1), 147-163.
- Crick, N., &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3), 710-722.
-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 Friendship and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 Hawley, P. H. (2003). Prosocial and coercive configurations of resource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 A case for the well-adapted machiavellian. *Merrill-Palmer Quarterly*, 49(2), 279-309.
- Haynie, D., Nansel, T., Eitel, P., Crump, A., Saylor, K., & Yu, K. (2001).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s : Distinct groups of at-risk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29-49.
- Hodges, E., Boivin, M., Virato, E., & Bukowski, W. M. (1999). The power of friendship : Protecting against an escalating cycle of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94-101.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1103-1118.
- Ladd, G. W., & Troop-Gordon, W. (2003). The roles of chronic peer difficulties in the development

-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Child Development*, 74(5), 1344-1367.
- Laursen, B., Bukowski, W. M., Aunola, K., & Nurmi, J. E. (2007). Friendship moderate prospectiv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adjustment problems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8(4), 1395-1404.
- Murg, S., Hoza, B., & Bukowski, W. M. (2004). Choosing or being chosen by aggressive-disruptive peers : Do they contribute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1), 53-65.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Rose, A. J., & Asher, R. S. (2004). Children's strategies and goals in response to help-seeking and help-giving tasks within a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75(3), 749-765.
- Rose, A. J., Senson, L. P., & Waller, E. M. (2004).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and perceived popularity :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concurrent and prospective 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40(3), 378-387.
- Rubin, K. H., Bukowski, W. M., &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 Ed.) *The handbook of child psychology*(6th ed., pp.571-645). New York : Wiley.
- Salmivalli, C., & Peets, K. (2008). Bullies, victims, and bully-victim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In K. H. Rubin., W. M. Bukowski, B. Laursen(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pp.322-340).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 (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 A 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1), 175-195.
- Schwartz, D. (2000). Subtypes of victims and aggress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2), 181-192.
- Sentse, M., Scholte, R., Salmivalli, C., & Voeter, M. (2007). Person-group dissimilarity in involvement in bullying and its relation with social statu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6), 1009-1019.
- Slonje, R., & Smith, P. K. (2008). Cyber bullying : another main type of bullying?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2), 147-154.
- Solberg, M., & Olweus, D. (2003). Prevalence estimation of school bullying with the Olweus Bully/Victim questionnaire. *Aggressive Behavior*, 29(4), 239-268.
- Troop-Gordon, W. P., & Asher, S. R. (2005). Modifications in children's goals when encountering obstacles to conflict resolution. *Child Development*, 76(3), 568-582.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4), 396-408.
- Valdivia, I. A., Schneider, B. H., Chavez, K. L., & Chen, X. (2005). Social withdrawal and maladjustment in a very group-oriented socie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3), 219-228.
- Vitaro, F., Boivin, M., & Bukowski, W. M. (2008). The role of friendship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evelopment. In K. H. Rubin., W. M. Bukowski, & B. Laursen(Eds.), *Handbook of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pp. 568-585).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Vitaro, F., Brendgen, M., & Wanner, B. (2005). Patterns of affiliation with delinquent friends during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 Correlates and

consequences. *Social Development*, 14(1), 82-108.
Wentzel. K. R., Barry, C. M., & Caldwell, K. A.
(2004). Friendships in middle school : Influences

on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1), 195-203.

2009년 8월 16일 투고, 2009년 10월 30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